

기초연금 도입

새누리의 진단

-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등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아 노인계층의 삶의 질이 낮은 상태
- 국민연금은 노인 빈곤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장기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안고 있음.
-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(2012년 94,600원)이 너무 낮아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음.

새누리의 약속

-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,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
-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(A값의 10%)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

새누리의 실천

- 「기초노령연금법」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(2013년)
-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「국민연금법」 법률개정 추진

어르신일자리 대폭 확대

새누리의 진단

- 건강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(65세 이상 노인 중 약 60만명 정도가 사회참여 욕구를 가진 것으로 파악)
- 그러나 현재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22만개에 불과하여 수요와 공급간 격차가 큰 실정이며, 급여수준(월 40만원, 최대 7개월)도 낮아 개선이 시급

새누리의 약속

- 2014~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를 신규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
- 단순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 개발, 보급
 - 아동안전·돌봄, 다문화가족·장애인지원, 노-노케어, 지역사회 환경 개선, 초등학생 등하교 지원, 다문화 여성 지원, 장애인 활동보조인, 초등학교 환경 미화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80%대로 확대
- 참여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여가능 개월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추진

새누리의 실천

-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
-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